

레위기

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(240717)

1. 레위기 11장의 문맥과 구조

- 1.1.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(레 1-10장)
- 1.2. 부정과 부정의 처리에 관한 규례(11-15장) → 속죄일을 위한 배경
 - 1.2.1.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(레 11장)
 - 1.2.2. 출산과 관련된 부정(레 12장)
 - 1.2.3. 피부병과 곰팡이로 인해 생긴 병(레 13-14장)
 - 1.2.4. 육체적 유출(레 15장)
- 1.3. 속죄일에 관한 규정(레 16장)

2. 정결/부정한 짐승에 대한 해석

- 2.1. () 해석
 - 2.1.1. 그 구분의 근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입장
 - 2.1.2. 가장 확실하기는 하지만,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되어야 함
- 2.2. () 해석
 - 2.2.1. 부정한 짐승은 이방 제사와 관련된 짐승이라고 주장
 - 2.2.2. 그러나 이방 제사에서도 레위기의 정결한 짐승을 사용(소, 양, 염소)
- 2.3. () 해석
 - 2.3.1. 부정한 짐승은 질병을 감염시켜서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
 - 2.3.2. 만일 그렇다면 예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짐승을 정결하다고 하셨을까(막 7:19)?
 - 2.3.3. 사실상 정결한 짐승이 위생적으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
- 2.4. () 해석
 - 2.4.1. 동물은 각기 ()적인 형태로 움직임 → 이에서 벗어난 것은 부정
 - A. 육상 생물: 갈라진 ()으로 걷고 ()을 함(레 11:3; 소, 양, 염소 등)
 - B. 수중 생물: 지느러미와 ()로 헤엄을 침(레 11:9; 뱀장어, 낙지, 멍게, 해삼 등)
 - C. 공중 생물: 두 ()로 날고, 두 ()로 걸음(레 11:13; 맹금류, 까마귀, 타조 등은 부정)

“궁창에는 두 다리를 가진 새가 날개로 날아다닌다. 물속에서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헤엄치며 다닌다. 땅에서는 네 다리를 가진 짐승이 뛰거나 뛰어오르거나 걸어 다닌다. 올바른 이동을 위한 요소를 구비하지 못한 부류의 피조물은 거룩함에 반대된다(M. 더글라스).”

2.4.2. 몇 가지 추가적인 고찰

- A. 토끼와 돼지의 경우 두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하여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
- B. 네 발을 가졌으나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부정함(레 11:41; 두더지, 쥐, 도마뱀, 악어, 카멜레온 등)
- C. 수중 생물 중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곤충들도 부정한 생물로 취급(물방개, 소금쟁이?)
- D. 피와 섞은 고기를 먹는 맹금류나 까마귀 등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

- E. 날개를 가진 곤충들 가운데 다리가 많은 것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(레 11:20)
- F. 그러나 새처럼 날개와 두 다리를 뛰는데 사용하는 곤충은 정결함(메뚜기, 베짖이, 귀뚜라미 등)
- G. 뛰는 두 발을 새의 두 발과 같이 취급하여 표준적인 형태의 운동방식을 가진다고 간주

3.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

- 3.1.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, 정결/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닿은 사람과 물건들
- 3.2.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고, 사물은 물로 씻되 저녁까지 부정(레 11:24-25)
 - 3.2.1. 어떤 물건들은 물에 담귀 저녁까지 지냄(레 11:32; 나무 그릇, 의복, 가죽, 자루 등)
 - 3.2.2. 깨뜨려 버려야 함(레 11:33, 35; 질그릇, 화덕, 화로 등)
 - 3.2.3.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는 주검에 의해 부정해지지 않음(레 11:36)
 - 3.2.4. 물이 묻은 씨앗에 사체가 닿으면 부정해짐(레 11:38)

4. 결론: 함축된 의미

- 4.1. 이 율법의 조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킴
 - 4.1.1.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의 구분이 때로 애매함
 - 4.1.2.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→ 하나님의 ()로 선택해 주심(신 7:6-8)
- 4.2. 이 율법은 신실한 유대인의 표지가 됨
 - 4.2.1. 음식법 혹은 정결법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()되게 함
 - 4.2.2. 그러나 나중에는 온전한 정신은 사라지고, ()의 장치로 전락함
 - 4.2.3. ()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, 거룩을 추구함
 - A. 짐승의 삼중구분: 부정한 / 정결한 /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
 - B. 사람의 삼중구분: 이방인/ 유대인/ 제사장
 - C. 언제나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을 묵상하도록 자극하는 표지
- 4.3. 정결법은 ()의 문제
 - 4.3.1. 예수님께서 정결/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철폐시키심(막 7:19; 행 10:10-16)
 - 4.3.2.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(마 15:19-20)
 - 4.3.3. 이제 먹는 것을 삼가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, () 때문(고전 8:13)!
 - A.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정신: 교제와 배려(행 15:20-21)
 - B. 술과 담배(한국인), 피(중국인), 커피(브라질인)
 - C. 축복과 저주 때문이 아니라, 사랑과 배려 때문에!